영조대 水産物産과 租稅收取의 지역적 특질

-『輿地圖書』 분석을 중심으로 -

송 경 은*

1. 머리말
2. 자료 소개
3. 조선후기 수산물산과 조세수취의 실태
   1) 『여지도서』의 기재상의 특성
   2) 도별 수산물산과 중앙으로의 수취
4. 조선후기 수산물산과 조세수취의 지역적 특질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의 公有財에 대한 소유권 규정은 山林川澤 與民共地라는 "왕토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 바다 역시 왕토의 일환으로 여겨졌고, 조선 중기에 접어들수록 토지자원의 賜給대상 고갈에 따라 漁箭, 藿田 등 일부 바다는 諸宮家와 衙門에 절수지의 대상으로 취급되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에 걸쳐 왕토이자 무주물의 이용에 대한 관리규정은 생산수단에 대한 조세부과 형태가 유일하였다. 조선 초기 수산과 관련된 규정은 經國大典 戶曹·魚鹽條에 의하는데, '여러 도의 어전과 염분은 등급을 나누어 장부를 만들어서 戶曹와 각 도, 각 고을에 보관한다. 장부에 누락시킨 자는 장(杖) 80대에 처하고 그 이득은 관에서 몰수한다. 어전을 사사로이 점유한 자도 같다. 어전은 가난한 백성에게 주되 3년이 되면 교체한다'로 조선 초기부터 私占을 엄금하고, 바다를 국가 관리 하에 두는 왕토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조선의 전 바다가 아닌 어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시대부터 이미 사점된 바 있었던 漁利가

*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좋은 일부 어전에 대한 이용 대상자와 用益 기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용익에 따른 조세부과는 정의되지 않고 있다.[1]

이후 수산 관련 조세는 어업행위에 필요한 漁箭, 漁船, 漁網 등 어획수단에 부과되는 형태로 발달하고 있었다.[2] 그러나 경국대전 이외에 관련 세제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징수와 관리기관이 분산된 형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3]

본격적으로 수산물의 용익을 조세로서 체계화한 것은 다름 아닌 均役海稅의 설정이다. 동 세목을 정의한 균역법의 대의는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는 것으로 減分된 국가재용을 새로운 재원으로 보충케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4] 즉 조선왕조가 수산업의 생산수단을 대상으로 일원화된 징수기관을 설정하고 해당 조세를 국가재정수입으로 전환시킨 균역법은 수산업의 관리 차원이라기보다 減布로 인한 국가재정수입의 보충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역해세 제도는 수산업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일원화된 징수기관 및 조세 체제의 성립, 이용에 대한 전국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어업제도로서의 의의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어업제도는 어업과 관련된 법령(formal rules), 관행(informal constraints), 그리고 이들 법령과 관행이 지켜지는 질서(effectiveness of enforcement)로 구성되는데,[5] 근대적 어업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시기에 어업과 관련된 법령은 대체로 조세를 통해 규율이 실현되고 있었다. 1차 산업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전근대적 사회의 경우 생산수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배 영역 하에 두었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는 국가수조권에 의해 발현된 형태라 하겠다. 동 수조권은 재화로서 地代와 공권유지비로서 부과하는 조세가 미분리 된 상태로 모두 국가에 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6] 따라서 조선 왕조의 어업에 대한 "조세수취"는 사실상의 용익을 승인하는 즉, 바다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후기 수산관련 조세제도와 관련 기록을 통하여 당시의 어업 실태와 어업제도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동시대성을 보유한 지방읍지의 총합인 『輿地圖書』를 집계 분석한다. 균역해세 성립 시기의 수산업과 국가재정, 수산물의 수취관계 나아가 지역적 특질 등을 구명하고자 한다.

---

1) 崔承熙, 1968 「제4절 고려시대의 어업」 『韓國水産史』, 水産廳, 21면.
2) 『비변사등록』 숙종 43년 丁酉 正月 28日條 (崔承熙, 앞의 책, 100-101면 재인용)
3) 이욱, 2003 「17세기말~18세기 전반 魚鹽稅 徵稅規定 整備와 官收官給制」 『朝鮮時代史學報』26, 186면.
4) 黃夏鉉, 1979 「良役의 實相과 均役法,의 實施」 『經濟史學』3, 64-69면
5) 유동운, 2000 「한국 어업제도 변화의 경제적 성과」 『수산연구』14, 26-27면
6) 金玉根, 1984 『朝鮮王朝財政史硏究(I)』, 一潮閣, 1면.

2.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자료는 『여지도서』이다.

『여지도서』는 영조 33년(1757년)부터 영조 41년간에 작성된 전국 군현의 읍지를 취합하여 중앙으로 보고된 총합 자료로서 18세기 중반 지역사회의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여지도서』는 총 55책으로 감영과 수영 등을 포함하여 총 313개의 관읍지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당시의 조선의 행정구역과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 9개읍, 2개 영지, 충청도 3개읍, 경상도 11개읍, 전라도 16개읍, 4개 영지 등 총 39개읍, 6개 영지 등 일부 지역이 누락되어 있지만 수록 사항의 사료로서의 가치는 여러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사항은 약 40여개로서 疆, 坊里(호구포함),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陵寢(墓),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産, 橋梁, 驛院, 牧場, 關阨, 烽燧, 樓亭, 寺刹, 古跡, 鎭堡, 人物, 旱田, 進貢, 糶糴,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 등이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동 자료에 대해 기존의 『東國輿地勝覽』을 기초로 하되, 방리(호구포함), 제언, 도로, 전결, 부세(진공, 조적, 전세, 대동, 균세), 군병 등의 항목이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世宗實錄地理志』의 형식과도 유사한 한편, 수록 내용 면에서는 지방으로부터 취합된 읍지 등의 자료를 기반하고 있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토산 항목보다 각 고을의 토산물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7]

또한 『여지도서』가 사료로서 주목받는 가치는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편성에 의해 각 읍지를 총합적으로 집계한 데에 있다. 특히 기존의 『읍지』가 사료로서 갖는 한계인 찬술연대의 불확실성, 수록 정보의 근거에 대한 자료 확보의 불충분성 등은 『여지도서』가 특정시기 중앙정부가 수합한 자료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해소된다.[8] 이는 기존의 『읍지』와 『여지도서』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라 하겠다. 물론 각 항목에 대해 지역별로 분석할 경우 각 지역 자료의 수록 방식에 세세한 규칙이 결여되어 있어 전국적 통계 자료로서 균질성이 부족한 부문이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지도서』의 사료적 한계는 동시대의 연관 사료를 이용하는 등 분석 상의 면밀한 해석과 대조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지금까지 『여지도서』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편찬의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부문, 자료 자체에 대한 서지학적 접근, 해당 자료의 기재 사항 · 방식 관련 타 지리지와

7) 이기봉, 2003 「朝鮮時代 全國地理志의 生産物 項目에 대한 檢討」 『문화역사지리』 제15권 제3호, 9면
8) 조영준, 2010 「영조대 均役海稅의 수취와 상납 : 『輿地圖書』의 집계 분석」 『한국문화』51, 6-7면

비교 분석한 연구, 수록 항목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분된다. 초기 연구는 역사적 배경과 기재 방식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특정 지역을 설명하는 사료로서 활용하거나 수록 항목에 대한 연구, 항목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 등으로 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9)]

최근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지도서』의 물산 부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이기봉과 서종태가 있다. 이기봉은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大東地志』 등 각 지리지의 물산 부문을 비교 연구하였는데, 실질적인 수록 사항 보다는 기존 자료의 계승과 차별성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서종태의 경우 『여지도서』의 물산 항목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록 품목수의 도별 분포 실태를 분석 및 『신증동국여지승람』과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 역시 수록 내용 보다는 수록 방식, 수록 범위 등에 집중되어 있다.

다음으로 『여지도서』의 항목에 대한 지역별 비교 연구는 변주승과 조영준의 연구가 있다. 변주승은 여지도서의 수록항목에 대한 도별 특성을 인물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여지도서』의 자료적 특성 파악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는 경상도와 충청도가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漢詩는 경상도가 전체의 48%, 記文의 경우도 경상도가 64%를 점유하는 등 경상도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기록의 충실성이 높게 나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영준은 『여지도서』의 균역 항목을 바탕으로 영조대의 균역해세의 수취와 상납의 특질을 고찰하였다. 기재방식 면에서 경상도·전라도·복합형 등 도별 특징을 분류하였고, 조선왕조 재정에서 보이는 형식주의 상존,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당시의 관행적 비총제, 나아가 18세기 해세 수취의 안정성 등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는 『여지도서』의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편, 수록 내용의 세부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수록 내용의 형식적인 부문 혹은 특정 항목에만 한정되어 있어 『여지도서』 내의 다른 연관 항목과의 교차 확인을 통한 통합적인 연구로서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전국 각 지역의 物産, 進貢, 均稅 등 수산관련 조세 기재사항에 대해 교차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당시의 산업의 생산과 조세부담의 정도, 나아가 국가의 수취체제의 현황과 연계성

9) 관련한 연구로 徐鍾泰, 2006 「『輿地圖書』의 物産 조항연구」 『韓國史學報』25 ; 정치영, 2008 「여지도서를 이용한 조선후기 제언의 지역적 특성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4호 ; 변주승, 2006 「『輿地圖書』의 성격과 道別 특성」 『韓國史學報』25

등에 대한 총합적인 이해를 높고자 한다.

물론 『여지도서』는 수록 사항이 40여개 이상으로 기존의 읍지 또는 지리지의 특성이 반영된 자료이기 때문에 조세수취의 목적에 특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여지도서』에는 지방 재정과 관련된 자료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여지도서』가 중앙정부가 동시대에 수합한 자료로서 각각의 수록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따라서 물산, 해세, 진공 등 수록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에도 일관된 신뢰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겠다.

3. 조선후기 수산물산과 조세수취의 실태

1) 『여지도서』의 기재상 특성

(1) 『여지도서』의 물산, 균역, 진공 항목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 항목은 주로 각종 과일, 채소, 약재, 수산물, 가축, 산짐승, 날짐승과 부산물, 광산물, 무기재료, 기타(담배, 꿀 등)로 구분된다.

기재방식은 物産 항목에 품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읍지, 지리지 자료를 참고해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舊增, 新增, 今無 등의 부기가 첨가되기도 하였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의 총수는 4,310개로서 이 중 수산물은 1,938개로 약 44.97%를 점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을 대동법 실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진상 물자를 책정하는 기준 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 후술하겠지만 『여지도서』는 물산항목에 진공항목이 대체로 포함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11]도 일부 상존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산항목과 진공항목의 상관관계가 높아 물산항목에는 중앙에서 수취가능한 물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도 부여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산물이 물산항목에서 점유하는 높은 비중은 진상품목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본 논문의 물산개수는 徐鍾泰, 앞의 논문, 599-606면에 의함

11) 대표적 사례로 다음을 소개한다. 전라도 순천의 경우 진상 품목은 11개 품목에 달하나 이 중 수산물산에 기재된 7가지 내역과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 보다는 대체로 수산물산과 진공항목이 일치하는 사례가 많다.

지역별로는 전체 물산의 경우 경상도가 가장 많은 851개 물산을 기재하고 있었으며,[12] 수산물의 경우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물산 중 수산물의 비중은 경기도, 함경도, 충청도, 황해도가 높게 분포하고 있다. 수산물의 종류는 함경도가 71종, 전라도가 61종, 황해도가 58종, 충청도와 경상도가 각각 57종으로 도별 평균 56.3종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2〉 참조).

〈표 1〉『여지도서』의 도별 물산 수록 현황

구 분	물산		
	총 계(A)	수산물산 수(B)	B/A(%)
경기도	259	178	68.73
충청도	513	249	48.54
전라도	534	226	42.32
경상도	851	317	37.25
강원도	485	179	36.91
평안도	604	234	38.74
황해도	345	166	48.12
함경도	719	386	53.69
합 계	4,310	1,938	44.97

〈표 2〉『여지도서』의 도별 수산물 종류

(단위 : 개)

구 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산물 종류	49	57	61	57
구 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수산물 종류	43	54	58	71

『여지도서』에 수록된 進貢항목은 물산항목과 마찬가지로 품목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형식은 경기도, 경상도,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등 5개도가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공의 품목을 나열 기재하는 형태이다. 이때 각 품목에 대한 수량은 포함되지 않는 등 제공 정보가 간단하다. 두 번째 방식은 함경도와 황해도가 취하는 형식으로, 각 지

12) 이는 변주승, 앞의 논문, 457-458면에서 여지도서의 인물과 문학작품의 관련 경상도 기록의 충실성을 언급한 부문과 정합적이다.

역에 대해 月令, 月朔, 正朝, 冬至, 誕日, 春秋禮納 등으로 세분화하여 기재한 방식이다. 지역에 따라 품목과 수량이 기재된 경우도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충청도가 취한 형식으로 월별 진상은 제외하고 到界, 進賀, 誕日, 中宮殿 등으로 분류한 혼합방식이다. 충청도의 경우 대체로 수량이 기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6개 대상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수산물을 진공하는 등 수산물 진공비율이 65.4%로 가장 높았고, 함경도, 전라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45.3%가 수산물 진공지역이었다. 진공된 수산물을 어종별로 구분했을 때 함경도가 21종, 경상도가 17종으로 다양한 해산물을 납공하였으며, 경기도가 蟹, 1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어종의 가공도에 따라 生·乾·鹽·醢으로 구분한 진상 품목수은 함경도가 58개, 경상도가 42개, 전라도가 34개, 강원도가 31개로 나타났다(〈표 3〉, 〈표 4〉 참조).

〈표 3〉『여지도서』의 도별 수산물 진공 지역비중

구 분	지역수	수산물 진공지역	수산물 진공비지역	수산물 진공지역비중(%)
경기도	31	3	28	9.7
충청도	51	22	29	43.1
전라도	40	25	15	62.5
경상도	60	24	36	40.0
강원도	26	17	9	65.4
평안도	42	13	29	31.0
황해도	23	13	10	56.5
함경도	23	17	6	65.2
합 계	296	134	164	45.3

〈표 4〉『여지도서』의 도별 수산물 진공 종류

(단위: 개)

구 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수산물	1	10	11	17
수산 품목	1	15	34	42
구 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수산물	15	3	11	21
수산 품목	31	4	21	58

『여지도서』에 수록된 균세항목은 田稅, 結錢, 選武軍官布, 海稅(魚鹽船藿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해세의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13]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도의 경우 어염선곽세를 총합하여 일괄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어염선곽세의 지역별 총규모에 대한 정보만 수록하고 있다. 두 번째로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의 경우 鹽稅와 船稅, 漁箭稅, 藿稅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황해도와 함경도의 경우 靑魚箭, 雜魚箭, 靑魚 揮罹,[14] 雜魚 揮罹 등 특정 어전과 어획에 대한 기재 포함되어 있으며, 전라도는 藿田, 苔田, 海衣田, 甘苔田 등 해조류 생산지의 세액이 기재되는 등 세분화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함경도는 선척수, 염분수에 근거한 균역해세가 상납되고 있으며, 일부는 세액만 기재된 혼합된 형태다.[15]

지역별로는 함경도가 23개 대상지역 중 19개 지역에서 해세를 부과하여 납부 지역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고,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는 51.4%가 해세납부지역이었다.

해세부과액는 전라도가 23,927.65냥, 경상도가 20,261.65냥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 지역이 3,389.9냥으로 가장 적었다.

〈표 5〉『여지도서』의 도별 균역해세 부과 지역비중

구 분	지역수	균역해세 납부 지역	균역해세 비납부지역	균역해세 납부 지역비중(%)
경기도	31	16	15	51.6
충청도	51	27	24	52.9
전라도	40	20	20	50.0
경상도	60	25	35	41.7
강원도	26	10	16	38.5
평안도	42	20	22	47.6
황해도	23	15	8	65.2
함경도	23	19	4	82.6
합계	296	152	144	51.4

13) 조영준, 앞의 논문, 10-18면. 에서는 해세의 어염선곽세의 총합만 일괄 기재, 세목별 분류 기재를 기준으로 경상도형과 전라도 형, 복합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14) 서유구, 2007『佃漁志』(金命年 편), 한국어촌어항협회, 65-66면. 捕靑魚法에 의하면 "揮罹網으로써 잡는다."라고 기재됨

15) 덕원, 부령, 북청, 영흥, 홍원 지역 등이 그 사례이다.

〈표 6〉『여지도서』의 도별 균역해세

(단위 : 냥)

구 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균역해세	3,389.90	7,530.79	23,927.65	20,261.65
구 분	강원도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균역해세	4,851.00	5,754.31	7,299.05	5,327.79

2) 도별 수산물산과 중앙으로의 수취

(1) 경기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경기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178건으로, 경기도 31개 지역 평균치는 약 5.74개이다. 인천, 안산, 강화, 남양, 영종, 부평 등에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다.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17개 지역으로, 양주, 과천, 광주, 금천, 음죽, 부평, 인천, 안산, 여주, 남양, 교동, 영종, 강화, 장단, 교하, 연천, 통진 등이다.

경기도 지역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류는 총 49종이다. 蟹가 8개 지역, 石花와 鮒魚가 7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이다.

경기도에서 수산물 진공은 안산, 통진, 광주 지역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진상지역의 비중이 9.7%로 타지역에 비해 낮으며, 품목도 蟹로 한 종류에 불과하다. 안산과 통진은 어염선세의 납부지역이나 광주의 경우 비납부지역이다.

경기도지역의 어염선세는 16개 지역에서 총 3389.9냥이 납부되고 있다, 동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11.5개로 지역 평균치인 6.85개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비납부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1.42개에 불과하였다.[16]

(2) 충청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충청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249건으로 충청도 51개 지역 평균치는 4.89개이다. 태안, 서천, 서산, 홍주, 남포, 보령, 비인, 결성, 오천 등에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수산물산 비중은 전체의 66.7%에 달한다.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약 20개 지역으로 당진, 청양, 홍주, 보령, 비인, 결성, 태안, 한산, 서천, 부여, 남포, 해미, 서산, 석성, 임천, 아산, 덕산, 영동, 이산 등이다.

16) 부록표에서 na로 표기된 5개 기재누락지역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임

충청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종은 총 57개이다. 蟹가 18개 지역, 秀魚가 17개 지역, 鱸魚가 12개 지역, 鯽魚와 石首魚가 11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어종이다. 충청도의 수산물산은 鯽魚, 錦鱗魚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海産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청도에서 수산물 진공은 22개 지역으로 전체지역의 약 43%를 점한다. 진공품목은 10개 어종, 15개 품목이다. 주요 품목은 석수어(신선, 細鱗, 仇乙非, 乾石魚), 葦魚(신선, 葦魚食醢), 錢魚(신선, 錢魚食醢), 秀魚(신선, 乾秀魚), 黃魚, 小鑼, 生鰒, 鹽, 魚食醢 등이다.[17] 충청도의 진공지역의 물산항목 수산물 기재는 평균 9.14개로 지역평균치인 4.8개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진공비대상지역은 1.65개에 불과하였다. 최다 진공지역은 해미로 5개 품목이 기재되어 있다.

충청도 지역의 어염선세는 27개 지역에서 총 7,530.79냥이 납부되고 있다. 어염선세납부 지역의 수산 물산항목은 평균 7.93개이나 비납부지역은 1.46개에 불과하였다.

(3) 전라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전라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226건으로, 전라도 40개 지역 평균치는 약 5.65개이다. 흥양, 영광, 강진, 장흥, 진도, 나주, 영암, 보성, 부안, 함평, 옥구 등에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다.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16개 지역으로, 옥구, 함열, 무장, 순천, 부안, 보성, 영광, 무안, 용안, 진도, 영암, 흥양, 흥덕, 장흥, 나주, 강진 등이다.

전라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종은 총 61개이다. 이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어종은 秀魚(16회), 烏賊魚(14회), 落蹄, 石花(이상 13회), 銀口漁(12회), 甘苔(10회)로 나타났다. 秀魚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낙제, 석화, 감태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류가 높은 생산 빈도를 점하고 있었다.

전라도의 진공품목은 11개 어종, 34개 품목이다. 石魚(細鱗, 仇乙非, 乾, 石卵, 石卵醢), 銀口漁(신선, 鹽銀口漁, 鹽銀口漁食醢), 秀魚(신선, 乾秀魚, 秀魚卵, 秀魚卵醢), 鰒(生鰒, 全鰒, 乾引鰒, 長引腹, 生鰒食醢, 乾熟鰒, 熟鰒),[18] 새우(乾大蝦, 中蝦, 乾中蝦), 烏賊魚(신선, 乾烏賊魚), 海衣(해의, 小海衣, 甘苔), 藿(早藿, 粉藿), 다시마, 紅蛤, 海蔘 등으로 구성된다. 전라도에서 수산품의 진공대상지역은 총 25개 지역으로 전라도 전체 기재지역의 63%를 점유한다. 이들 진공지역의 물산항목 수산품수

17) 진공품목이 어류명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가 가공도가 불분명하나 본 논문에서는 신선으로 표기하였다. 이하 다른 도에서도 동일하다.

18) 건전복은 말린 전복을 의미하며, 인복은 사과 깍듯 얇고 길게 저며 말린 것을 의미

는 평균 8.76개로 지역평균 5.4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수산물 진공의 비대상지역의 물산항목의 수산물 기재는 0.26개에 불과하였다.

수산물의 진공품목은 강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암, 광양, 해남(이상 14건), 장흥(13건), 흥양, 나주, 진도, 순천, 낙안(이상 12건), 보성(11건)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라도의 海稅 기재방식은 앞서 언급한대로 세분화되어있다. 총 13개 부문으로 선세, 곽전 · 태전 · 해의전, 어장 · 어좌 · 소소렴 · 좌렴 · 어기 · 어망 · 어조 · 어전, 염분세 등이다. 전라도의 총 40개 지역 중 어염선곽세를 납부한 지역은 절반인 20개 지역으로 총 23,927.65냥이 납부되고 있다. 해세를 부담하는 지역의 평균 수산물 기재수는 약 10.75개, 해세를 부담하지 않는 지역의 평균 수산물 기재수는 0.4개에 불과하였다.

(4) 경상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경상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317건으로 경상도 60개 지역 평균치는 5.3개이다. 동래, 김해, 웅천, 영일, 영덕, 곤양, 고성, 거제, 기장, 영해, 청하, 경주, 진해, 창원 장기, 진주 등에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수산물산 비중은 전체의 79.2%에 달한다.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약 16개 지역으로 영일, 기장, 영덕, 웅천, 장기, 진해, 영해, 김해, 청하, 곤양, 고성, 창원, 동래, 거제, 남해, 칠원, 경주, 하양 등이다.

경상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류는 총 57종이다. 이 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어종은 銀口漁(32회), 大口魚, 鯽魚(이상 16회), 生鰒(15회), 靑魚(14회), 洪魚(13회), 海蔘, 藿(이상 12회), 黃魚, 紅蛤, 文魚(이상 11회) 등으로 나타났다. 은구어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동 어종은 경상도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다. 대체로 경상도의 물산 기재 중 수산물은 鯽魚를 제외하면 대부분 바다에서 생산되는 어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도의 진공은 총 138건으로 鰒류 36건, 藿 · 文魚 15건, 靑魚 · 大口魚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공품목은 17개 어종, 42개 품목이다. 가침어(건가침어), 廣魚(신선, 乾廣魚), 大口魚(신선, 乾대구어, 반건대구어, 대구란), 은구어(신선, 鹽은구어), 전어(신선, 건전어), 청어(신선, 貫目청어), 홍어(건홍어), 황어(건황어), 복(생복, 전복, 大전복, 乾鰒短引, 引鰒, 短引鰒, 無鹽생복, 小鹽생복, 생복식해, 건복), 홍합(홍합, 乾홍합, 裂홍합, 裂乾홍합), 해삼(해삼, 건해삼), 문어(신선, 건문어, 소문어, 건소문어), 곽(조곽, 분곽, 藿耳), 해의, 가사리, 烏海藻, 수달담 등이 그것이다.

경상도에서 수산품의 진공대상지역은 24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진공지역의 물산항목 수산물 기재수는 11.42개로 지역평균 5.3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공대상이 아닌 36개 지역의 물산항목 수산물 기재수는 1.58개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진공 품목은 고성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거제, 경주(이상 9개), 연일, 용천, 기장, 진주, 칠원(이상 8개), 김해, 곤양, 창원, 진해, 남해(이상 7개)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상도의 해세 기재방식은 통합형이다. 해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총 23개 지역으로 총 20,161.76냥이 납부되고 있었다. 해세납부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11.32개이나 비납부지역은 0.97개에 불과하였다. 균역해세 비납부지 지역에서 물산으로 기재된 수산품은 은구어, 즉어 등으로 나타났다.

(5) 강원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강원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179건으로, 강원도 26개 지역 평균치는 약 6.9개이다. 강릉, 간성, 평해, 양양, 삼척, 통천, 고성, 흡곡, 울진 등 9개 지역이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수산물산 비중은 강원도 전체 수산물 기재건의 약 76%에 달한다. 지역별로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6개 지역으로, 흡곡, 평해, 통천, 간성, 양양, 삼척 등이다.

강원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종은 총 43개이다. 이 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어종은 餘項魚(16회), 鮒魚(14회), 錦鱗魚(11회) 등으로 대부분 하천 등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높은 생산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강원도의 진공은 총 133건으로 鰱魚 20건, 大□魚 16건, 藿, 文魚 13건, 紅蛤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진공품목은 15개 어종, 31개 품목으로 가공정도는 생·신선, 건제품, 난제품 등이다. 광어(신선, 건광어), 대구어(신선, 대구란, 건대구어, 반건대구어), 沙魚(신선, 건사어), 雙魚(건쌍어), 松魚(신선, 송어란), 連魚(신선, 연어란, 건연어, 연어난해), 은어(신선, 건은어), 은구어, 여항어, 생복(생복, 원복), 홍합(신선, 건홍합), 해삼(신선, 건해삼), 문어(신선, 건문어), 해의, 곽(조곽, 분곽, 양곽) 등이 그것이다. 강원도에서 수산품의 진공대상 지역은 총 17개 지역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지역의 물산항목의 수산품수는 9.2개로 지역평균 6.9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산물 진공의 비대상지역의 물산항목의 수산물 기재는 1.35개였다. 수산물의 진공품목은 강릉부가 18개로 가장 많았고, 고성, 통천(이상 16개), 삼척(15개), 간성, 울진(이상 14개), 양양(13개), 평해(10개), 흡곡(8개)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

었으며, 이외 8개 지역은 모두 1개의 수산품만을 진상하는 등 지역별로 수산물 진공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원도의 경우 선염곽세의 납부 실적도 대체로 물산 항목 수산 기재, 진상 납공과 일치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례로는 흡곡 지역이 있는데, 동 지역의 수산물산 기재는 10건에 달하며, 진상품목은 8개로 나타나는데, 선염곽세 납부 실적은 없다.

대체로 강원도는 수산물 생산 지역과 진상, 선염곽세의 납부가 지역별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진상품목과 물산 기재 품목이 타도에 비해서 일치성이 높은 편이다.

강원도의 해세 기재방식은 통합형이다. 해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총 10개 지역으로 총 4,851냥이 납부되고 있었다. 해세납부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13.9개이나 비납부지역은 2.4개에 불과하였다. 균역해세 비납부지역의 수산물산은 鮒魚, 여항어, 금린어 등으로 나타났다.

(6) 평안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평안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234건으로, 평안도 42개 지역 평균치는 약 5.6개이다. 철산, 용천, 곽산, 선천, 삼화, 용강, 정주, 숙천, 벽동 등 9개 지역에서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수산물산 비중은 평안도 전체 수산물산 기재건의 약 49.6%이다. 지역별로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14개 지역으로, 용강, 철산, 숙천, 함종, 정주, 곽산, 증산, 용천, 선천, 영유, 순안, 구성, 강서, 평양 등이다.

평안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종은 총 54개이다. 이 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품은 秀魚(16회), 錦鱗魚(14회), 餘項魚, 石花(이상 12회), 石首魚, 洪魚(11회), 鱸魚, 鮒魚, 蛤(이상 10회)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민물고기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평안도의 진상은 총 26건으로 어종은 민어, 석어, 어란, 하란 등 3개 어종, 4개 품목에 불과하다. 진공 대상 지역은 총 13개 지역으로 31%를 점하고 있었다. 수산물 진공대상지역의 물산항목의 수산물 기재는 평균 9.9개로 지역평균 5.6개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진공비대상 지역은 3.1개였다.

평안도의 총 42개 지역 중 해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총 20개 지역으로 5754.31냥이 납부되고 있었다. 해세납부 지역의 수산물산은 평균 8.7개이나 비납부지역은 2.7개로 나타났다.

(7) 황해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황해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166건으로, 황해도 23개 지역 평균치는 약 7.22개이다. 해주, 강령, 옹진, 장연, 연안 등 5개 지역이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는데, 동 수치는 황해도 전체 수산물 기재건의 약 58.43% 이상으로 황해도의 주요 수산물 생산지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10개 지역으로, 연안, 옹진, 재령, 강령, 장연, 백천, 해주, 안악, 은율, 풍천 등이다.

황해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류는 총 58종이다. 이 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어종은 秀魚(11회), 洪魚, 鯽魚, 蟹(이상 10회)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도, 평안도, 충청도와 마찬가지로 秀魚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황해도의 진공은 총 44건이며, 진공품목은 11개 어종 21개 품목이다. 대하(신선, 건대하), 대합, 민어, 생복, 석수어(신선, 거린석수어, 건석수어, 석수어난해), 수어(건수어, 건수어란, 凍수어), 은구어(신선, 염은구어), 紫蝦(해), 竹蛤, 청어, 합(생합, 합식해) 등이 그것이다. 황해도에서 수산품의 진공대상지역은 13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지역의 수산물산은 11.2개로 지역평균 7.22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공대상이 아닌 10개 지역의 수산물산 기재수는 2.1개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진공품목은 해주, 연안이 7개로 가장 많았다.

황해도의 해세 기재방식은 통합형이다. 해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총 15개 지역으로 총 1356.3냥이 납부되고 있었다. 해세납부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8.47개이나 비납부지역은 5.0개인데, 이는 타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8) 함경도

『여지도서』에 기재된 함경도 지역의 수산물은 총 386건으로, 함경도 23개 지역 평균치는 약 16.78개이다. 북청, 길주, 함흥, 경성, 경흥, 홍원, 부녕, 정평, 단천, 안변, 명천, 영흥, 회령, 문천, 이성, 덕원, 은성, 경원 등 18개 지역이 10건 이상의 수산물이 기재되고 있는데, 동 수치는 함경도 전체 수산물 기재건의 약 95.85%를 점유한다. 지역별로 전체 기재 물산 중 수산물이 50% 이상을 점유하는 지역은 총 13개 지역으로, 경흥, 홍원, 은성, 이성, 부녕, 정평, 문천, 경성, 회령, 함흥, 명천, 길주, 경원 등이다.

함경도의 물산항목에 기재된 어류는 총 71종으로 가장 많다. 이 중 10개 지역 이상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어종은 연어, 홍합(이상 17회), 송어(16회), 황어, 방

어, 염(이상 15회), 해삼, 청어(이상 14회), 고도어, 해, 문어(이상 13회), 홍어, 대구어(이상 12회), 은어, 광어, 麻魚, 수달(이상 11회), 곽(10회) 등으로 나타났다.

함경도의 진공은 총 288건이며, 진공품목은 21개 어종 58개 품목이다. 古刀魚(건고도어, 고도어腹腸醢, 고도어體醢, 고도어염), 곤포(蒸곤포), 苽魚(신선, 건과어), 곽(상곽, 조곽, 중곽), 광어(건광어), 다시마, 대구어(신선, 건대구어, 대구어고지해, 대구어란, 대구어란해, 대구어장, 동대구어, 반건대구어), 문어(신선, 반건. 건문어), 황대구어, 백대구어, 백문어, 생복, 석화, 송어(신선, 식해, 침송어), 연어(신선, 건연어, 동연어, 연란, 연란해, 연어해, 침연어), 은구어(은구어해), 은어(신선, 건은어), 접어(건접어, 접란), 청어, 해삼(신선, 건해삼), 홍합(신선, 건홍합, 홍합해), 황어(신선, 건황어)등이 그것이다.

함경도에서 수산품의 진공대상지역은 17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수산물산은 19.5개로 지역평균 16.9개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공대상이 아닌 6개 지역의 수산물산 기재수는 9.5개로 나타났다. 수산물의 진공 품목은 홍원이 25개로 가장 많았다.

함경도의 해세 기재방식은 선척수, 염분수에 근거한 것이다. 선세는 亇船, 耳船, 小耳船, 杉船과 염분은 完全, 半破 혹은 상, 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해세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은 총 19개 지역으로 총 5327.79냥이 납부되고 있었다. 어염선세 납부지역의 수산물산항목은 평균 19.2개이나 비납부지역은 6.3개였다.

4. 조선후기 수산물산과 조세수취의 지역적 특질

조선후기에 걸쳐 수산물의 생산 정보는 『佃漁志』, 『牛海異魚譜』 등의 魚譜를 통해 접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별 생산에 대한 정보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물에 특화된 자료는 아니나 18세기 지역별 수산물의 생산 정보는 『여지도서』에 수록된 물산항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조세 수취와 연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여지도서』의 기사를 바탕으로 수산과 관련한 중앙재정의 이행에 대한 몇 가지 특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여지도서』의 물산, 해세, 진공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수산업의의 주요 생산지를 꼽을 수 있다. 최대 수산물산 기재지역은 함경도 북청으로 35개의 수산물

산이 기재되어 있다.[19] 전국적으로 수산물산이 20개 이상 기재된 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23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인천, 안산, 강화, 남양 등 4개 지역, 충청도는 태안, 서천, 서산, 홍주 등 4개 지역, 경상도는 동래 1개 지역, 강원도는 강릉, 간성 2개 지역, 함경도는 북청, 길주, 함흥, 경성, 경흥, 홍원, 부녕, 정평, 단천, 안변 등 10개 지역, 황해도는 해주, 강령 등 2개 지역, 전라도와 평안도는 해당 지역이 없다.[20]

최대 해세 납부지역은 전라도 영광으로 2,823.3냥을 부과하고 있다. 1,000냥 이상 납부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27개 지역이다. 경기도는 남양 1개 지역, 충청도는 홍주, 비인, 서산 3개 지역, 전라도는 영암, 영광, 흥양, 부안, 옥구, 나주, 무장, 장흥, 진도, 강진, 순천 등 11개 지역, 경상도는 영덕, 동래, 거제, 고성, 웅천, 영일, 장기, 김해 등 8개 지역, 강원도는 김해 1개 지역, 평안도는 평양 1개 지역, 황해도는 옹진, 강령 등 2개 지역으로 함경도는 해당 지역이 없다. 함경도는 수산물산이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으나, 특정 지역에 대량의 해세는 부과되지 않았으며, 전라도는 그 반대의 사례이다.

이어 최대 진공지역은 함경도 북청으로 전체 28개의 수산물이 기재되어 있다. 수산물 진공품목이 10개 이상 기재된 지역은 전체 296개 지역 중 33개 지역이다. 전라도는 강진, 영암, 광양, 해남, 장흥, 흥양, 순천, 나주, 진도, 낙안, 보성 등 11개 지역, 경상도는 고성 1개 지역, 강원도는 강릉, 통천, 고성, 삼척, 울진, 간성, 양양, 평해 등 8개 지역, 함경도는 북청, 홍원, 영흥, 덕원, 길주, 명천, 단천, 인성, 안변, 함흥, 문천, 경성, 정평 등 13개 지역으로 경기도, 충청도는 해당 지역이 없다.

지역별로 기재 빈도가 높은 수산물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蟹, 石花, 鮒魚 충청도는 蟹, 秀魚, 鱸魚, 鯽魚, 石首魚, 전라도는 秀魚, 烏賊魚, 落蹄, 石花, 銀□漁, 甘苔, 경상도는 銀□漁, 大□魚, 鯽魚, 生鰒, 青魚, 洪魚, 海蔘, 藿, 黃魚, 紅蛤, 文魚, 강원도는 餘項魚, 鮒魚, 錦鱗魚, 秀魚, 錦鱗魚, 餘項魚, 石花, 石首魚, 洪魚, 鱸魚, 鮒魚, 蛤, 황해도는 秀魚, 洪魚, 鯽魚, 蟹, 함경도는 連魚, 紅蛤, 松魚, 黃魚, 魴魚, 鹽, 海蔘, 青魚, 古刀魚, 蟹, 文魚, 洪魚, 大□魚, 銀魚, 廣魚, 麻魚, 水獺, 藿 등이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는 어종은 수어, 은구어, 등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다.

둘째, 『여지도서』수산물산과 해세, 진공항목 간 상관관계가 관찰되며, 이는 여지

19) 여지도서가 전체 읍을 포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상에 유의하여야 함
20) 전라도는 영광과 흥양이 각각 18개, 평안도는 철산이 16개가 최대임

도서의 물산항목이 수산물 수세 파악기능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근거가 된다. 지역별 수산물산은 평균 4.9~16.9개가 기재되고 있는데, 진공부과지역은 8.76~19.5개, 비진공부과지역은 0.26~9.5개이다. 대체로 수산물 진공부과지역은 비부과지역에 비해 수산물산의 평균 기재수가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해세기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해세 납부지역은 8.5~19.2개, 비납부지역은 0.4~6.3개로 나타난다. 이는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의 수산물 기재와 관련 사료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는 근거로서 꼽을 수 있겠다. 한편 경기도, 평안도, 함경도 등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수산물 진공 비부과지역의 평균 수산물산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경기도, 평안도의 수산물의 진공 종류와 수가 2~4개로 적고, 진공지역의 비중 또한 9.7%, 31%로 낮은 것이 그 원인이며, 함경도는 수산물산의 기재수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점이 반영된 것이다.〈표 7 참조〉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여지도서의 도별 수산물산과 진공수, 도별 수산물산과 해세부과량를 분산형 그래프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진공품목수가 1~4개 품목으로 제한적인 평안도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도별 수산물산과 진공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도별 수산물산과 해세와의 관계 역시 동일한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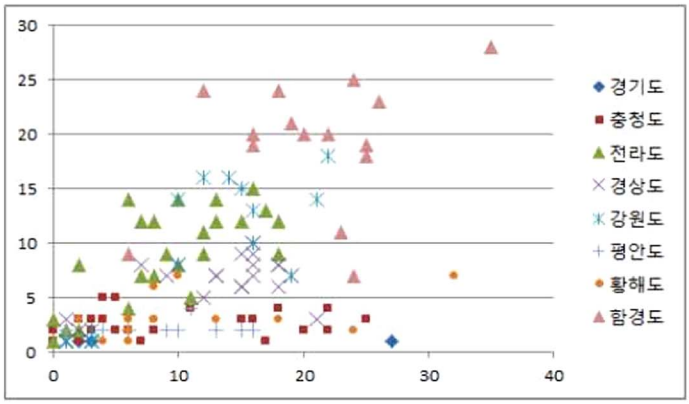
〈표 7〉 여지도서의 도별 진공, 해세 부과지역의 평균 수산물산 비교

(단위 : 개)

구 분	물산평균	수산물 진공		해세	
		부과지역	비부과지역	부과지역	비부과지역
경기도	5.48	10.67	5.21	10.00	0.67
충청도	4.89	9.14	1.65	7.93	1.46
전라도	5.65	8.88	0.27	10.75	0.4
경상도	5.28	10.95	2.00	11.32	0.97
강원도	6.90	9.20	1.35	13.9	2.4
평안도	5.6	9.9	3.09	8.7	2.7
황해도	7.22	11.2	2.1	8.47	5.0
함경도	16.9	19.5	9.5	19.2	6.3

〈그림 1〉 여지도서의 도별 수산물산과 진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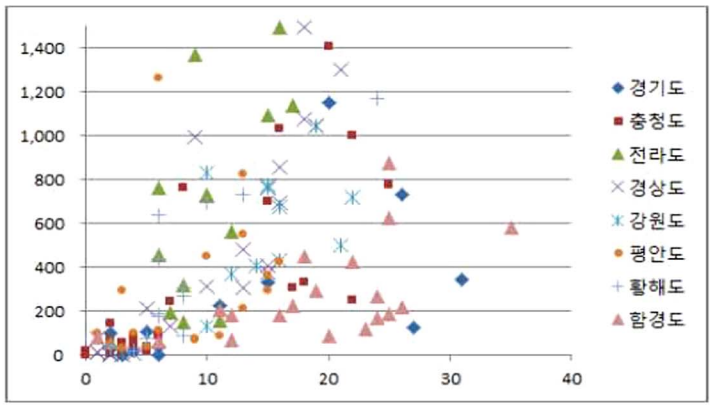
(단위 : 개)



주 : 가로축은 수산물산, 세로축은 진공을 의미함.

〈그림 2〉 여지도서의 수산물산과 균역해세

(단위 : 냥, 개)



주 : 가로축은 수산물산, 세로축은 해세를 의미함.

더해서 어염선세가 세분화된 전라도의 기재 사례는 곽 · 해의 · 태전의 납부와 물산항목과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된다. 미역, 김 등 정착성이 강한 해조류가 자생하는 특정 해역에는 일찍이 소유권 제도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藿田, 菖田으로 지칭될 만큼 토지와 유사한 권리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실제 文記 등을 통해 빈번하게 매매되고 있었다.[21] 이와 같이 곽 · 해의 · 태가 자생하는 특정

21) 이종길, 앞의 논문(1997), 맹골도 사례 등

해역에 대해 부과하는 곽전세, 태전세, 해의전세는 전라도 8개 지역에서 총 758.5원에 달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 지역의 물산항목에는 해당 물품이 포함 기재되고 있다.

〈표 8〉에 의하면, 영암에서는 곽전, 태전, 해의전세전을 납부 하고 있는데, 수산물산으로 곽, 감태, 해의 등이 기재되어 있다. 흥양은 곽전과 해의전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산물산으로 곽, 해의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나주, 장흥, 진도, 강진, 해남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8〉 전라도 지역의 해세 납부 -곽전, 태전, 해의전-

(단위 : 냥)

지역	개수	수산물산	곽전 세전	태전 세전	해의 전세전	합계
영암	12	석화, 하, 낙제, 복, 홍합, 수어, **감태**, **해의**, **세모**, **황각**, 염, **곽**	63.3	19	26.7	109.0
흥양	18	오적어, 수어, 병어, 낙제, 해삼, 대화, 석화, 전복, 감합, 홍합, 강진주(금무), **해의**, **곽**, 감태, 황각, 석어, 민어, 문어	71.0		85.0	156.0
나주	13	복, 수어, 은구어(금무), 오적어, 낙제, 석화, **감태**, **해의**, **황각**, **곽**, 위어, 백어, 하돈	57.5			57.5
장흥	16	낙제, 노어, 수어, 복, 수달, 석화, 오적어, 감합, 염, 우모, 세모, 은구어, 홍합, **곽**, **해의 감태**, **황곽**	18.0	4.0	3.0	25.0
진도	15	수어, 낙제, 홍합, 민어, 전어, 석화, 사어, 생복, 죽합, 어교, **황각**, **감곽**, **감태**, **해의**, **청각**	162.0			162.0
강진	16	**감태**, **해의**, **황각**, 은구어, 오적어, 낙제, 감합, 대합, 감각, 해삼, 황어, 석수어, 노어, 加不魚, 리즉, **석태**	115.0	118.0		233.0
해남	9	**해의**, 감합, 수어, 우모, **곽**, **감태**, **황각**, 석화, 낙제, 오적어	10.0			10.0
영광	18	석수어, 광어, 오적어, 합, 죽합, 낙제, 석화, 백하, 어표, 진어, 소어, 황각, 염, 수어, 대하, 중하, 청어, 감태	6.0			6.0
합 계						758.5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여지도서』 물산항목 기재의 신뢰성은 대체로 높다고 판단되나, 일부 정보가 누락된 사례라 하겠다. 예를 들어, 영암은 수산물 진상품목 14건 중 12건이 물산항목 기재 수산물품이나 다시마, 해삼은 동 기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시마의 경우 영암에서의 곽세 납부기록으로 유추해 볼 때 영암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동 품목은 물산 항목에서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례로 강진을 꼽을 수 있다. 강진은 곽세를 115냥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강진의 전체 균역해세 1497냥의 약 7.7%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여지도서』 강진의 물산조항에는 곽(조곽, 분곽)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같은 물산 기재의 누락 여부는 『여지도서』전후에 편찬된 지리지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이 가능하다. 표 9는 영암과 강진을 대상으로 『여지도서』보다 약 200여년 앞서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이후에 쓰여진 『대동지지』의 토산 조항 중 수산품목을 비교한 것이다. 강진의 진공품목 중 수산물산으로 기재되지 않은 복, 곽, 수어, 홍합, 다시마 5개 품목 중 다시마를 제외한 4개 품목이 『신증동국여지승람』 혹은 『대동지지』의 토산조항으로 기재되고 있다. 이는 시기별로 전국적인 지리지 작성 시 목적과 원시이용자료에 따라 토산 또는 물산 조항의 기재사항이 일부 차이가 발생되었음을[22] 반영하는 한편, 기존 지리지에서 토산조항으로 기재되었던 부문이 『여지도서』에서 물산과 진공조항 두 부문으로 분산 기록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재 규칙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표 9〉 지리지의 토산, 물산조항 비교 -영암, 강진-

구 분	영암	강진
공통	복, 홍합, 감태, 해의, 우모, 황각, 곽	감태, 해의, 황각, 해삼
여지도서 신증동국여지승람	석화, 하, 낙제, 수어, 염	은구어, 오적어, 낙제, 황어
여지도서 · 대동지지	-	-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莓山	매산, 牛毛, 細毛, 복, **곽**
여지도서	세모	감합, 대합, 감곽, 석수어, 노어, 가불어
신증동국여지승람	즉어, 합, 해, 莓山, 가사리	합, 염, **수어**, 석화, **홍합**
대동지지	-	-

22) 이기봉, 앞의 논문, 5-12면에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항은 각사에 소장되어있던 공안을 정리한 것으로 생산의 유무를 떠나고 있으며, 반면 『여지도서』는 각 고을에서 직접 올린 사항을 재편한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에 국한되지만, 물산, 진공, 해세 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는 곳도 발견된다. 수산 물산과 진공물품의 기재 사항이 풍부하고 실제 바다와 인접하여 수산물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해세 납부실적이 없는 지역이 발견된다. 함경도 문천, 황해도 해주, 충청도 오천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함경도 문천은 수산물산 16종, 진공품목은 19종, 황해도 해주는 수산물산 32종, 진공품목 7종, 충청도 오천은 수산물산 11종, 진공품목 4종으로 연해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지만, 해세에 대한 납부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다.

〈표 10〉 해세 미부과지역의 도별 진상품목

지역		수산물산	진공품목	진상품목
		개	개	
전라도	순창	1	2	은구어, 염은구어
	임실	1	2	은구어, 염은구어 식해
	곡성	2	2	은구어, 염은구어
	구례	0	1	염은구어
	옥과	0	3	굴비, 은구어, 염은구어
충청도	덕산	3	2	세린석수어, 수어
	천안	na	2	굴비, 건수어
	전의	0	1	소라
강원도	평강	3	2	여항어, 양곽
	횡성	1	1	여항어
	인제	3	1	여항어
	양구	1	1	여항어
	홍천	3	1	여항어
	평창	3	1	여항어
	정선	3	1	여항어
경상도	예천	2	2	은구어, 수달담
	용궁	1	1	은구어
	고령	1	1	은구어
	함창	1	1	은구어
	예안	1	1	은구어

주 : na는 관련항목의 기재가 없음을 의미

그리고 『여지도서』에 수산물산과 진공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세가 미부과된 지역이 다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수산물산이 1~3종, 진공품목도 1~2개에 불과하다. 관련 어류도 지역별로 동일한 특정 어류를 대상으로 한다. 대체로 전라도와 경상도는 銀□魚, 강원도는 餘項魚, 충청도는 石首魚, 秀魚 등으로 석수어를 제외하면 내수면에서 서식하는 어류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후기 재정구조 중 특히 공물, 진상은 擬制的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23] 『여지도서』의 기재사항에도 이러한 점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모든 지역에서 공물, 진상을 부과하도록 지역별로 흔히 생산될 수 있는 하나의 품목을 명시·분정한 부문은 진상품목에서 나타난 일종의 명분론적 형태로 평가된다.

또한 수산 물산과 해세 부과실적이 있으나 수산물의 진공사항이 전무한 지역이 있다. 〈표 11〉은 어염선세 100냥 이상 부과 지역 중 수산물 진공이 비부과된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 경상도의 밀양과 평안도의 선천, 가산, 황해도의 풍천, 함경도의 회령, 경원, 경흥 지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먼저 경상도 밀양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해변에 접하지 않은 내륙지방으로 수산물산 또한 은구어, 황어, 즉어 등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대부분이다. 어염선세는 해양보다는 낙동강, 밀양강 등 내수면의 이용에 부과된 것으로 왕실과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밀양에서 생산되는 내수면 어종은 적합한 진공품목이 아니었던 것이다.[24] 다음으로 평안도는 진공 물품의 도별 특성으로부터 설명이 가능하다. 평안도 지역은 전술한 바대로 진공품목이 민어, 석어, 어란, 하란 등 4개 품목으로 제약적이며 진공지역이 전체 지역의 31%에 불과하다. 황해도 풍천은 공물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항에도 청어, 곽, 어표 등 3개항목만이 기재된 바, 이전시기부터 수산물의 진상이 저조한 지역이었다. 비교적 왕실이 위치한 한성과는 원거리인 회령, 경원, 경흥 등 함경도 지역은 공통적으로 黃毛, 熊膽, 鹿茸, 麝香, 牛黃, 甘草 등 내의원에 봉진되는 약재를 진상하는 것으로 기재되고 있으나, 동 사례는 읍지 등의 사료를 통해 진상 품목의 분정원칙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부문이다.

---

23) 德成外之子, 2001 『朝鮮後期 貢納請負制와 中人層貢人』,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7면

24) 물론 해당지역에서 진공의 의제적 성격의 발현 여부는 지역 사료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구명될 필요가 있다.

〈표 11〉 수산물 진공 비부과지역과 어염선세 상이사례

지역		물산	수산물산	진공품목	어염선세
			개	개	
경상도	밀양	21	5	-	211.70
평안도	선천	18	13	-	553.00
	가산	7	3	-	292.00
황해도	풍천	11	6	-	439.00
함경도	회령	28	17	-	224.55
	경원	22	11	-	206.00
	경흥	28	25	-	189.00

수산물산과 진공이 기재되지 않고 있지만, 해세 부과지역인 경우도 있다. 충청도의 단양, 제천, 옥천, 연기 등이 그 사례이나, 이들 지역의 해세부과액은 0.5~17냥으로 그 부과액이 미미하다. 동일한 자료에서 함경도의 경우 소이선 1척에 대해 최소 1냥을 부과하고 있는데, 따라서 선세 0.5냥의 부과는 소규모 선박 1척에도 해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 역시 기왕의 연구에서 조선왕조 재정운영에서 보이는 한 가지 특질로 제시된 바 있는 형식주의의 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25]

균역해세 납부지역으로 수산관련 진상품목이 10개 이상이며, 물산항목의 수산물 기재도 다수로 나타나지만 물산과 진상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역도 있다. 전라도 강진, 광양, 해남, 순천, 낙안 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 지역의 공통적인 진상품목은 복, 해삼, 홍합 등 패류와 해의, 곽, 다시마 등 해조류이다. 해당 지역의 위치도 바다에 인접하며 서남해역의 특성상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진상물품이 실질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았다기보다 기재가 누락되거나 후술하는 시장화 가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일부 물산, 진공, 균역해세 간에 불균질한 관계가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이 중앙에서의 수취 가능한 수산물의 수세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대동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공물이 대동미로 전환된 상태에서 중앙으로 상납되는 수산물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해 조달되고 있었으며 『여지도서』의 물산과 진공항목은 그러한 역할 담당을 도모하기위한 것이었다. 실제 진상 책임을 맡고 있던 각 지방의 감영 수록된 수산관

25) 조영준, 앞의 논문, 19면

련 진공 물품과 도별 물산은 1~2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며,[26] 감영의 도별 진공항목이 도내 각 지역의 진공에 포함되고 있음이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27]

셋째, 수산물의 진상품목을 통해 수산물의 가공정도와 시장화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진공을 요약하면 경기도, 평안도는 진공 어종이 蟹, 民魚, 石魚, 蝦卵 등 1~3종으로 가공에 대한 부문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진공품목의 종류는 충청도(15개), 황해도(21개), 강원도(31개), 전라도(34개), 경상도(41개), 함경도(58개) 순으로 많아지는데, 품목별 평균 가공제품 또한 충청도 1.5개, 황해도 1.9개, 강원도 2.1개, 전라도 3.1개, 경상도, 2.4개, 함경도 2.8개로 중앙에서부터 원거리일수록 수산물의 가공이 고도화 되고 있었다.

더해서 지역의 진상 품목 중 물산항목에 비기재된 사례를 바탕으로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라도 사례를 살펴보자. 전라도의 진상품목 중 물산항목에 비기재된 사항은 품목기준 96건으로 생복(5회), 해삼(9회), 홍합(7회), 건대하(7회), 굴비(6회), 소해의(6회), 건수어(4회) 등이었다. 해삼, 홍합, 생복은 바다 속에서 잠수를 통해 전문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물품으로 鮑作干과 같은 직역을 부여받은 자 또는 촌락의 협업을 통해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8] 生鰒은 일찍부터 진귀한 식재료로 인식된 품목으로 진상을 위해 해당 품목의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하겠지만, 전복, 홍합, 해삼 등 3개 어종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항에 수록된 바 있으나, 유독 『여지도서』상에서는 물산조항에서 제외되고 진공조항에만 포함된 사례가 발견된다. 강진, 해남, 순천 등 3개 지역이 그러하다. 여기서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해 볼만하다. 우선 실제로 해당품목 당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

26) 평안도, 경기도, 함경도, 황해도는 수산물 진상품 전체가 도내 생산되고 있으며, 전라도는 다사마, 강원도는 쌍어, 충청도는 황어, 염 등이 도내 물산 비기재 품목으로 나타난다.

27)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감영의 진상품목이 문어, 대구, 복, 연어, 송어, 광어, 은어, 은구어, 여항어, 홍합, 해삼, 곽, 해의이며, 강원도 각 지역의 진상품목의 총합은 광어(건광어) 대구어(대구란, 건대구어), 사어(건사어), 건쌍어, 송어(송어란) 연어(연어란, 건연어, 연어난해), 은어(건은어), 은구어, 여항어, 생복, 홍합(건홍합), 해삼(건해삼), 문어(건문어), 해의, 곽(조곽, 분곽, 양곽)으로 나타난다.

28) 조선왕조실록에는 "앞서 변수가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가 되어, 선군 15명을 보내어 생복을 해도 속에서 채취하다가 왜구에게 겁략을 당했는데…"(『成宗實錄』 권292, 성종 25년 7월 庚寅)과 "울산에 사는 해척 등 14명이 울릉도에 들어가 어복, 향죽을 채취하였는데 삼척의 포구에서 잡혔습니다. 그 섬은 방금이 지극히 엄한데도 울산 백성이 번번이 병영의 채복공문을 가지고 해마다 방금을 범하니…"(『正祖實錄』 권24권, 정조 12년 7월 戊子)라는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또한 佃漁志의 採鰒法에는 "4,50인이 무리를 지어 가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음에도 불구하고 진공품목에는 아직도 포함된 경우이다.[29] 두 번째로 해당물품의 진공조달을 위한 유통루트가 형성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단순 기재 누락의 가능성이다. 우선 『신증동국여지승람』이 각 사에 소장되어 있던 공물안에 기반을 두고 토산조항을 작성한 자료이므로 첫 번째 가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강진, 해남, 순천 등은 잘 알려진 임해지역으로 주변에 다수의 도서가 분포하는 등 해당품목이 생산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두 번째 가설인 해당물품이 시장에서 공물관련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러한 부문이 『여지도서』의 기재 시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만하다. 실제 『여지도서』상 전라도의 전복관련 진상품목은 생복, 전복, 건인복, 건숙복, 장인복, 숙복, 생복식해 등으로 다양하게 기재되고 있다. 그러나 전복, 홍합, 해삼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를 통해 확고하게 입증될 필요가 있는 부문으로 본 논문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외에도 건대하, 굴비, 건수어 등의 물품은 수산물의 장기 유통이 용이하게 가공된 물품으로서 당시 진상물품 뿐만 아니라 소비용으로 거래되는 등 상당한 시장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장시통계를 수록하고 있는 『林園經濟志』(1830-40)에도 전체 장시 1,051기 가운데 품목이 기재된 316기[30] 중에서 어·염을 포함한 장시는 247개로 약 78.2%가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점도 18~19세기 조선에 있어 수산물의 시장화를 뒷받침해 준다.

요컨대 『여지도서』는 조세수취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수산관련 물산에 대해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에서의 명령에 의해 취집하는 자료의 특성상 지방에서의 형식적인 보고용으로 작성되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에 수록된 기사는 당시의 수산업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록임은 분명하다.

---

29) 18세기 공물의 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사례를 참조하면 된다. 『存齋集』권3 「奉事」(奎 12629)에 의하면 공물의 폐단과 관련 장흥에서 표고가 생산되지 않은지 이미 백년이 다 되었는데도 常貢 품목에 아직도 표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김경옥, 2011 「18세기 金理守의 『擊錚』을 통해본 섬주민의 賦稅 대응」 『고문서집성』38, 37-66면에는 흑산도 주민의 닥나무 절종에 따라 부세에 대응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30) 동일 품목들이 여러 장시에 해당할 경우 1개로 계산함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수산자원을 파악하고 수산업에 대한 조세 수취를 제도가 아닌 실태를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도 정보의 유용성과 사료로서의 가치가 확인된 『여지도서』의 수산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산항목은 수산물의 지역별 생산 정보, 균세 및 진공항목은 중앙재정으로의 조세수취를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을 통해 지역별 수산 물산수와 주요 어종을 제시하였고, 진공 품목, 균세 부과 등 관련 기재사항과 교차 비교를 하였다. 최대 수산물산 및 진공의 기재지역은 함경도의 북청으로 수산물산이 35개, 진공물품이 28개였다. 최대 균역해세 부과지역은 전라도 영광으로 해세액은 2,823.3냥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지도서』수산물산과 해세, 진공항목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균세 납부 실적으로부터 기재 누락이 유추되거나 물산, 진공, 해세 항목 간 정합적이지 못한 사례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도를 기준으로 총합할 경우 진공물품이 수산물산에 포함되고, 도의 진공을 책임지는 감영의 진공물품이 각 지역에서 진공물품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여지도서』에 기재된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여지도서』의 물산항목은 중앙에서 각 지역의 조세수취 물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여지도서』의 수산물 진상품을 통해 수산물의 가공정도가 상당 수준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로 염제품, 건제품, 醯제품, 凍제품 등 유통에 용이한 형태이다. 특히 진공품목의 종류와 품목별 가공제품은 중앙으로부터 원거리일수록 고도화되고 있었다.

본 논문은 『여지도서』를 통해 균역법 이후 수산 물산, 관련 조세 부담 수준, 지역별 특징, 납부 방식 등을 중심으로 당시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 보다 폭 넓은 이해상 제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광범위한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물산과 진공, 해세의 상관관계가 낮은 지역에 대해 지역적 공통 특질 등을 세밀하게 도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서 읍지 등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輿地圖書, 物産, 土産, 進貢, 均役, 海稅, 水産業, 水産物産

접수일(2012. 2. 16), 심사시작일(2012. 2. 29), 게재확정일(2012. 3. 12)

어지도서의 수산물산, 진공, 어염선세 현황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경기도	강화	34	26	76.47		730.00
	교동	6	5	83.33		106.00
	영종	19	15	78.95		331.50
	양주	6	6	100.00		
	영평	6	0	0.00		
	포천	6	0	0.00		
	교하	6	4	66.67		19.50
	가평	9	0	0.00		
	장단	8	6	75.00		0.20
	풍덕	na				88.90
	과천	3	3	100.00		
	부평	12	11	91.67		228.50
	남양	24	20	83.33		1154.10
	인천	34	31	91.18		342.00
	안산	31	27	87.10	1	124.55
	진위	na				
	용인	3	0	0.00		
	금천	2	2	100.00		
	양성	na				88.00
	통진	4	2	50.00	1	101.10
	삭녕	7	3	42.86		1.50
	마전	5	2	40.00		
	연천	5	3	60.00		3.00
	광주	3	3	100.00	1	
	여주	7	6	85.71		37.75
	이천	2	0	0.00		
	양근	9	2	22.22		33.30
	지평	7	0	0.00		
	죽산	na	0			
	음죽	1	1	100.00		
	양지	na	0			
충청도	공주	5	2	40.00		47.25
	임천	3	2	66.67	3	144.00
	한산	7	6	85.71	2	86.44
	전의	2	0	0.00	1	
	은진	17	5	29.41	5	41.00
	청주	15	0	0.00		
	천안	na	na		2	
	옥천	12	0	0.00		3.00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문의	7	3	42.86		5.50
	직산	9	3	33.33	3	56.00
	충원	25	4	16.00		54.50
	청풍	12	2	16.67		19.50
	단양	7	0	0.00		17.00
	괴산	8	1	12.50		
	연풍	5	0	0.00		
	음성	1	0	0.00		
	영춘	14	2	14.29		6.00
	제천	6	0	0.00		4.00
	홍주	21	20	95.24	2	1410.70
	서천	26	22	84.62	4	250.00
	서산	29	22	75.86	2	1000.00
	태안	28	25	89.29	3	779.00
	오천	15	11	73.33	4	
	목천	5	0	0.00		
	회인	9	0	0.00		
	진천	6	0	0.00		
	보은	12	0	0.00		
	영동	6	3	50.00		
	황간	8	0	0.00		
	청산	8	0	0.00		
	남포	22	18	81.82	4	334.00
	결성	16	15	93.75	3	700.00
	보령	18	17	94.44	1	305.00
	아산	11	7	63.64	1	243.94
	신창	2	0	0.00		
	예산	1	0	0.00		
	해미	5	4	80.00	5	47.70
	당진	8	8	100.00	2	763.00
	평택	8	2	25.00	1	72.00
	홍산	6	1	16.67		
	덕산	5	3	60.00	2	
	청양	2	2	100.00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대흥	6	2	33.33		
	비인	17	16	94.12	3	1035.36
	회덕	6	1	16.67		
	진잠	10	3	30.00		
	연산	24	6	25.00		
	이산	4	2	50.00		
	부여	6	5	83.33	2	19.00
	석성	6	4	66.67	3	86.40
	연기	2	0	0.00		0.50
전라도	광주	15	1	6.67		
	장성	7	0	0.00		
	영암	19	13	63.16	14	1787.30
	영광	26	18	69.23	9	2823.30
	함평	23	11	47.83	5	156.20
	고창	7	1	14.29		
	능주	11	0	0.00		
	광양	15	6	40.00	14	766.70
	구례	8	0	0.00	1	
	흥양	30	18	60.00	12	2586.00
	동복	13	0	0.00		
	화순	5	0	0.00		
	순창	8	1	12.50	2	
	용담	4	0	0.00		
	창평	6	0	0.00		
	임실	12	1	8.33	2	
	무주	9	0	0.00		
	곡성	17	2	11.76	2	
	옥과	7	0	0.00	3	
	흥덕	12	7	58.33	7	195.00
	부안	14	12	85.71	9	2043.00
	옥구	10	10	100.00	8	1883.00
	용안	3	2	66.67	8	55.00
	함열	8	8	100.00	7	152.00
	고산	5	1	20.00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태인	9	0	0.00		
	나주	24	13	54.17	12	1808.90
	무장	10	9	90.00	9	1372.70
	남평	8	1	12.50		
	무안	9	6	66.67	4	460.00
	장흥	28	17	57.14	13	1139.50
	진도	23	15	65.22	12	1097.30
	강진	32	16	50.00	15	1497.00
	해남	19	10	47.37	14	734.50
	운봉	9	0	0.00		
	진안	9	0	0.00		
	장수	12	0	0.00		
	순천	8	7	87.50	12	2486.75
	낙안	25	8	32.00	12	320.00
	보성	15	12	80.00	11	563.50
경상도	대구	18	4	22.22		8.00
	경주	28	15	53.57	9	404.13
	진주	28	10	35.71	8	311.27
	합천	13	1	7.69		
	청송	11	0	0.00		
	예천	13	2	15.38	2	
	영천	11	1	9.09		
	풍기	10	1	10.00		
	의성	13	0	0.00		
	영양	8	0	0.00		
	영덕	25	18	72.00	6	1494.40
	상주	13	1	7.69	3	11.00
	성주	8	1	12.50		72.87
	선산	11	2	18.18		
	금산	5	1	20.00		
	동래	36	21	58.33	3	1303.89
	청하	23	15	65.22	6	374.31
	영일	23	18	78.26	8	1073.85
	장기	17	12	70.59	5	2585.84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기장	22	16	72.73	8	858.01
	언양	15	2	13.33		
	칠곡	7	0	0.00		
	밀양	21	5	23.81		211.70
	청도	14	1	7.14		
	경산	8	2	25.00		
	자인	6	2	33.33		
	안동	22	1	4.55		
	순흥	10	0	0.00		
	영해	22	15	68.18	6	762.66
	김해	29	19	65.52	7	1044.92
	창원	22	13	59.09	7	480.00
	함안	13	3	23.08		
	거제	28	16	57.14	9	2841.72
	고성	27	16	59.26	10	2587.89
	칠원	13	7	53.85	8	130.59
	진해	19	13	68.42	7	307.21
	웅천	25	18	72.00	8	1582.70
	신녕	9	0	0.00		
	하양	4	2	50.00		
	인동	6	2	33.33		
	현풍	11	2	18.18		3.50
	의흥	16	0	0.00		
	영산	10	2	20.00		7.50
	창녕	8	1	12.50		13.05
	초계	11	1	9.09		
	함양	8	1	12.50		
	곤양	25	16	64.00	7	697.94
	남해	16	9	56.25	7	992.81
	거창	11	1	9.09		
	개녕	3	0	0.00		
	지례	6	1	16.67		
	고령	8	1	12.50	1	
	문경	9	1	11.11		
	함창	8	1	12.50	1	
	봉화	8	2	25.00		
	진보	9	0	0.00		
	군위	6	0	0.00		
	비안	4	0	0.00		
	예안	12	1	8.33	1	
	용궁	6	1	16.67	1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강원도	원주	12	4	33.33		
	춘천	29	3	10.34		
	정선	21	3	14.29	1	
	영월	10	3	30.00		
	평창	20	3	15.00	1	
	삼척	30	15	50.00	15	778.00
	양양	29	16	55.17	13	434.00
	평해	19	16	84.21	10	676.00
	간성	38	21	55.26	14	501.00
	고성	25	12	48.00	16	367.00
	통천	21	14	66.67	16	410.00
	울진	26	10	38.46	14	833.00
	흡곡	10	10	100.00	8	130.00
	영해	22	15	68.18		762.66
	김해	29	19	65.52	7	1044.92
	금화	11	0	0.00		
	이천	10	3	30.00	1	3.00
	안협	13	2	15.38		
	평강	16	3	18.75	2	
	강릉	46	22	47.83	18	719.00
	횡성	8	1	12.50	1	
	홍천	13	3	23.08	1	
	인제	11	3	27.27	1	
	회양	17	3	17.65		
	철원	11	2	18.18		
	양구	11	1	9.09	1	
	낭천	16	2	12.50		
	金성	12	3	25.00		
	예안	12	1	8.33	1	
	용궁	6	1	16.67	1	
평안도	평양	12	6	50.00	2	1261.80
	중화	19	4	21.05	2	100.00
	용강	14	13	92.86	2	214.20
	의주	13	5	38.46		39.50
	철산	19	16	84.21	2	427.50
	용천	20	15	75.00	2	363.00
	영변	12	1	8.33		
	운산	9	1	11.11		
	희천	16	3	18.75		
	박천	5	2	40.00		50.00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태천	4	0	0.00		
	강계	41	7	17.07		
	위원	24	3	12.50		
	이산	18	3	16.67		
	벽동	26	10	38.46		
	영원	12	1	8.33		
	삼화	28	13	46.43	2	825.45
	강서	2	1	50.00	2	100.50
	증산	12	9	75.00	2	69.56
	순안	5	3	60.00		29.00
	성천	12	0	0.00		
	덕천	13	2	15.38		
	개천	12	2	16.67		
	순천	18	3	16.67		
	자산	5	0	0.00		
	창성	24	6	25.00		
	삭주	7	2	28.57		
	구성	18	9	50.00		77.00
	선천	18	13	72.22		553.00
	곽산	20	15	75.00	2	297.00
	상원	5	0	0.00		
	삼등	16	5	31.25		
	양덕	21	4	19.05		
	맹산	12	3	25.00		
	강동	2	0	0.00		
	은산	15	3	20.00		
	안주	13	6	46.15	2	116.00
	정주	13	10	76.92	2	451.50
	숙천	14	11	78.57	4	90.10
	가산	7	3	42.86		292.00
황해도	해주	45	32	71.11	7	
	연안	10	10	100.00	7	692.00
	평산	16	5	31.25		74.00
	곡산	14	5	35.71		
	봉산	18	8	44.44	6	86.90
	재령	7	6	85.71	3	187.00
	수안	17	1	5.88		

지역		물산	수산물		진공 품목수	어염선세
			개수	비중		
	안악	13	8	61.54	3	270.40
	신천	6	2	33.33	3	46.00
	신계	9	1	11.11		
	토산	4	1	25.00		
	서흥	19	0	0.00		
	문화	3	0	0.00		
	장련	18	8	44.44	3	305.00
	풍천	11	6	54.55		439.00
	장연	16	13	81.25	3	733.00
	백천	5	4	80.00	1	19.00
	금천	37	2	5.41		32.00
	송화	3	0	0.00		
	은율	10	6	60.00	1	175.50
	강령	29	24	82.76	2	1170.00
	옹진	21	18	85.71	3	2429.00
	황주	14	6	42.86	2	640.25
함경도	함흥	42	25	59.52	19	627.00
	영흥	37	18	48.65	24	451.80
	경성	40	25	62.50	18	874.00
	길주	47	26	55.32	23	221.00
	명천	32	19	59.38	21	297.00
	회령	28	17	60.71	0	224.55
	정평	33	23	69.70	11	120.75
	고원	23	6	26.09	9	62.10
	안변	55	20	36.36	20	89.00
	덕원	31	12	38.71	24	182.70
	문천	24	16	66.67	19	
	북청	85	35	41.18	28	582.00
	단천	46	22	47.83	20	427.00
	이성	21	16	76.19	20	184.50
	홍원	27	24	88.89	25	168.00
	갑산	12	2	16.67		
	삼수	10	1	10.00		
	종성	15	6	40.00		
	은성	14	12	85.71		72.00
	경원	22	11	50.00		206.00
	경흥	28	25	89.29		189.00
	부녕	34	24	70.59	7	269.39
	무산	13	1	7.69		80.00

주 : na는 관련항목의 기재가 없음을 의미

〈Abstract〉

A Study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of Marine Products and Sea Tax during the King Yŏngjo Era by Analyzing *Yŏji Tosŏ*

Song, Kyoung Eun *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marine products and sea tax during the King Yŏngjo era. *Yŏji Tosŏ*, created base on a survey, contains various fishery records that help determine the fishery at that time. The book also provides the information on local products and tax through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物産), sea tax(均稅) and Jingong(進貢). In terms of the whole country, 44.97% of the local products included in *Yŏji Tosŏ* are marine products.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among the provisions in *Yŏji Tosŏ* showe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with local marine products and the number of items in the late Chosun Dynasty. Second, there was a correlation among the provisions,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物産), sea tax(均稅) and Jingong(進貢) meaning that *Yŏji Tosŏ* is reliable as a historical record.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product-related provisions(物産) served as basic materials for collecting tax. Third, Jingong(進貢), a tribute rendered to the king, was to help determine the degree of marketization and processing of marine products in the 18th century. The farther distanc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d been the more advanced the processing.

Key Words : product-related provisions, sea tax, Jingong, *Yŏji Tosŏ*, marine product, fishery

* Associated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